



호텔업계
플라스틱 절감
자원순환 앞장
나



Life

삼일제약
나노 신약으로
글로벌 입지 굳힌다
L2



“인력난 심각한 제조업… 지원제도 개선으로 악순환 끊어야”



새벽을 여는 사람들

(주)한양기계 장미숙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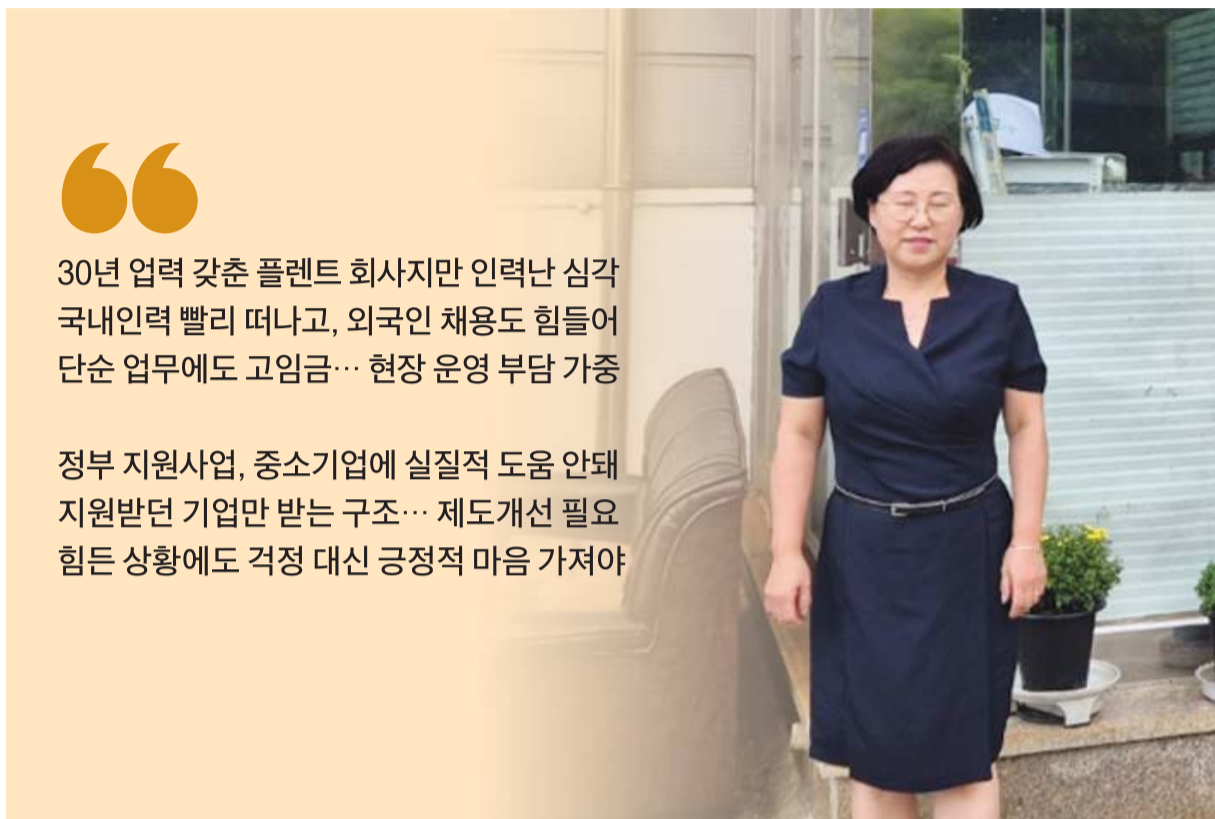
“현재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회사가 반드시 그들의 조건에 맞춰야 한다. 일이 계속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설 플랜트(크락사) 제작 프렌트 전문회사인 (주)한양기계 장미숙 실장의 말이다. 그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면 그들은 기술을 배운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소 역할만 수행하게 되니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강조했다.

“

30년 업력 갖춘 플랜트 회사지만 인력난 심각
국내인력 빨리 떠나고, 외국인 채용도 힘들어
단순 업무에도 고임금… 현장 운영 부담 가중

정부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 안돼
지원받던 기업만 받는 구조… 제도개선 필요
힘든 상황에도 걱정 대신 긍정적 마음 가져야



장미숙 (주)한양기계 실장이 회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주)한양기계 공장 모습. 산업 기계, 크락사 등이 위치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 1길에 위치한 (주)한양기계는 산업 기계 프렌트, 크락사 제작,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제작·설치, 밀링 가공 등을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주력 사업인 크락사는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쇠석해 재사용 가능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돼 있다.

장미숙 실장은 “회사가 3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젊은 근로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차라리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업무 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출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근하곤 한다”면서 “출근 후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간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고, 퇴근 준비는 10분 전부터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용역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당 18만원에 고용하고 있다. 한 달에 약 43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용역이지만 정직원처럼 대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을 쓸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당이 14만원부터 시작한다. 청소와 페인트칠 등 단순 업무를 해도 고임금을 받는다”라며 “현장 상황을 아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상황이다. 임금이 낮아지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남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체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이 더욱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제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거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취업 기피’가 89.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복지 수준’이 85.8%,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가 4.0%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수급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35.5%로 1순위였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이 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가 14.9%,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10.9%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정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구조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정부 지원 클린 제조 사업을 통해 고소작업대 보조지원금을 받았지만, 공단이 인정하는 고소작업대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서 “어디선가 금액이 부풀려져 비싸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70%를 지원받겠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금액에 부담감을 느낀다. 절반 가격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짜로 주지 않는 정책자금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기업만 계속 받는 구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걱정 대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걱정은 걱정으로 끝내고 고민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현재의 위치와 환경, 조건에 맞춰 그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세월 흐르는 대로 살자. 고민해 봤자 마음의 병만 생길 뿐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5년4개월 만에 태극마크 단 이승우, 홍명보 감독 눈도장 받을까
▲‘호날두 A매치 133호골’ 포르투갈, 폴란드에 3-1 승리 /사진 뉴시스

▲‘노벨문학상’ 한강, 가요계에도 영향력…약무 역주행·흰 재조명
▲‘K-문학 세계화 박차’…김윤덕 의원,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법안 발의



▲서옥태훈, 통산 5번째 출신원 성공…KPGA 투어 역대 최다
▲한강 작가 책, 교보문고서 판매량 910배 증가 /사진 뉴시스